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개인주의가 기업가적 지향에 미치는 영향 비교 연구*

안진원 (한동대 경영경제학부 교수)**

유대현 (한동대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원)**

국 문 요 약

본 연구의 목표는 한국의 기업가적 지향성을 비교하고 개인주의가 한국의 기업가적 지향성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는 것이다.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분석을 실시한다. 첫 번째 영역에서는 F검정과 t검정을 통해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들의 기업가적 지향성을 비교하였고, 두 번째 영역에서는 양국 대학생들의 기업가적 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변수에 대해서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여러 문화적 변수들 중에 개인주의에 집중하였다. 개인의 기업가적 지향성을 종속변수로 놓고 문화적 변수인 개인주의를 독립변수로 하여 개인주의가 양국 대학생들의 기업가적 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양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질문은 개인의 기업가적 지향성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과 개인의 기업가적 성향에 영향을 주는 문화적 요인을 측정하는 질문으로 나누어져 있다. 개인의 기업가적 지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내재적 통제력(Locus of Control)과 혁신성(Innovativeness)을 묻는 세부 질문을 만들었고, 문화적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개인주의(Individualism)의 정도를 묻는 질문을 만들어 설문을 실시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잠재적 기업가정신을 비교한 기존의 연구들의 결론과 마찬가지로, 기업가적 지향성은 중국의 대학생들이 한국의 대학생들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문화적 요인에 있어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다르게 오직 중국 대학생들의 기업가적 지향성만이 개인주의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한국의 대학생들의 어떤 종속변수도 개인주의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

핵심주제어: 기업가정신, 내재적 통제력, 혁신성, 기업가적 지향성, 개인주의

1. 서론

1.1. 연구 필요성과 목적

세계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발전의 견인차로 기업가정신에 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늘날 세계적 기업으로 떠오른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도 소규모의 벤처 기업으로 시작했으나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여 천문학적 수익과 고용 창출을 이루어 미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가정신은 경쟁력 있는 기업을 키워내어 국가 경제에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잠재력을 포착한 칼 슈람은 기업가정신이 세계경제의 새 엔진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Schramm, 2008).

기업가정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비례하여 학계의 연구도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다. 기업가와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는

1934년 슈페터(Schumpeter)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기업가정신 연구가 활발해진 때는 1970-80년대였다. 특히, 기업가정신은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중소기업과 구분된 독특한 독립적 연구 분야로 인정받기 시작했는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기업가정신 연구분야가 더욱 세분화되어 기업가의 자본 조달 및 벤처캐피탈, 기업가적 과정 및 창업기업 경영, 기업가 네트워크 등의 다양한 주제로 연구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기업가정신 연구는 최근 20년 사이에 발달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 다양한 경영 관련 학술지에서 빈번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김영환·양태용, 2013).

Kiss, et. al.(2012)는 지난 20년간 발행된 주요 논문 88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제기업가정신 연구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떠오르고 있는 동아시아 경제권에 대한 기업가정신 연구가 여러 학회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2016 한국벤처창업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제1저자 및 교신저자, 한동대학교 경영경제학부 교수, ahn@handong.edu

*** 공동저자, 한동대학교 국제개발협력센터 전임연구원, dhyyoo@handong.edu

· 투고일: 2016-05-17 · 수정일: 2016-06-23 · 게재확정일: 2016-06-26

중국, 한국, 대만 그리고 싱가포르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및 태평양 경제권의 연구 빈도는 러시아와 폴란드를 포함한 유럽 및 중앙아시아 경제권 다음으로 높다. 이 중에서도 중국에 대한 관심은 매우 커서 지난 20년간 발행된 주요 국제학회지에서 중국은 23편 이상의 논문에서 연구 주제로 다루어졌다.

이는 러시아, 폴란드, 대만에 대한 연구 빈도 수를 월등하게 초월하고 있는 수치이다. 이처럼 국제적으로 동아시아 경제권의 기업가정신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최근 이 지역 국가들의 뜨거운 창업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창업은 현재 중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2015년 3월 전국인민대표회에서 중국의 리커창총리는 민간과 시장을 창업의 주체로 강조하는 “대중창업, 만중혁신(大眾創業, 萬眾革新)”을 천명하였다. 이는 창업에 대한 중국 당국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한 예로 중국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예를 들어, 중국 정부는 창업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던 기존의 창업비용 및 행정절차를 획기적으로 축소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기존의 ‘공상등기제도’에서는 창업 등기에 최소 3만 위안(약 560만원)이 필요했지만 2014년부터 최소 금액 규정을 삭제하여 1위안만 있어도 창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중소기업의 소득세도 50% 감면하였다.

또한 창업 과정에 거쳐야 하는 160여 개의 행정절차를 지방 정부에 이양하고 ‘홍정중개(紅頂中介)’와 같이 절차를 복잡하게 했던 요소들을 간소화하였다. 이에 더하여, 창업가가 창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해야 하는 영업허가증, 조직기구증, 세무등기증의 세 가지 증서를 하나로 통합한 ‘삼중합일(三證合一)’제도를 시행하였다. 이외에도 중국 당국은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생 창업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였는데, 2013년부터 졸업 후 바로 창업하는 대학생들은 국무원을 통해 창업 당해의 세금 8천 위안과 1년간의 사무실 임대료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문 서비스와 대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15년 교육부가 배포한 ‘전국 대학 졸업생 취업과 창업에 관한 통지’는 각 대학에게 대학 재학생의 휴학 창업 제도를 실시하고, 대학 내에 창업 전문 교과과정을 개설하며, 성공한 창업가를 교수로 초빙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곽배성, 2015).

중국 정부는 민간 주도의 창업 인프라 형성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2015년 민간의 창업 촉진을 위해 400억 위안(약 7조원)의 정부 예산이 ‘국가 신흥산업 창업투자 인도 기금’으로 조성되었다. 또한 베이징의 중관촌 지역에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중관촌 지역은 우수인력과 정책지원 및 자금이 몰리면서 중국 전체 창업투자의 1/3이 집중되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의 혁신창업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과학기술창업 인큐베이팅센터는 중국 전역에서 2013년 기준으로 1,500여 개

가 운영 중에 있으며, 입주기업은 7만 8,000개에 달하고 창업자 수는 158만 3,000명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주도적인 노력에 힘입어 중국에서는 2014년에만 1,293만 개의 새로운 창업기업 혹은 1인 기업이 탄생하였고, 2015년 1~4월까지 매일 1만 개의 기업이 탄생하는 등 창업 붐이 확산되었다(오종혁·김홍원, 2015).

한국의 창업 지원 정책의 시작은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대중 정부는 국가적인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주로 정보기술(IT) 관련 벤처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으로 9,000억 원의 지원자금을 마련하여 새로 창업한 벤처기업에 3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하였다. 또한 1998년 ‘벤처특별법’ 4차 개정을 통해 실험실 및 교수창업을 가능하게 하고, 창업 자본을 2,000만원으로 낮춰 창업의 문턱을 낮추었다.

‘벤처촉진지구’를 도입하여 지방 벤처 기업 육성정책도 펼쳤는데 조세감면을 통한 창업 활성화를 피하고 벤처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도 마련하였다. 9차 개정에서는 스톱업선제 확대 시행을 결정하였다. 2002년 ‘벤처 건전화 방안’에선 M&A 활성화 정책과 시장 활성화 및 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지원 결과 1998년 말 200개에 불과하던 IT 관련 기업은 2001년 6월에 1만 개로 증가하였고, 벤처기업의 생산 비중은 한국 전체 GDP의 3%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벤처 산업에 대한 과열된 투자는 벤처거품을 양산하였고 이로 인해 벤처 산업은 점차 퇴보하게 된다(고명숙 외, 2015).

벤처거품 붕괴 이후 한국 정부는 엔젤투자의 위축과 중간회수시장 미비로 인해 창업생태계가 와해되었음을 인정하고 선순환적인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창업대학원, LINC 사업, 창업경진대회 등 창업자 육성을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창업선도대학, 청년창업사관학교와 같은 패키지형 창업지원 사업, 창업보육센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운영을 통한 창업인프라 구축 사업, 창업관련 자본시장 형성을 위한 회수시장 강화 및 M&A 지원 사업과 같은 정책 등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과거의 정책에 비해 창업 생태계를 고려하여 내실을 다지는 성격이 강한 정책들이다. 중앙정부의 지원사업들에 한정하여 지원사업의 규모를 보면 총 1조 8,203억원 정도이다(이성봉, 2015).

기업가정신과 창업은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 가운데 하나로, 창조경제의 기치 아래 기업가정신을 촉진하고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창업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우수한 청년창업가 발굴 양성’이나 ‘원활한 제도전 환경 조성’을 추진과제로 명시하였다. 2013년도에 발표된 정부 6대 전략 중 ‘창의성을 정당하게

1) 정부의 기업 대상 업무를 위임 받아 시행하는 기관이며 입찰, 공중 등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대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행정 절차 기간 및 비용 낭비가 많아 폐단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을 첫 번째로 제시하였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중소기업청 주도의 창업선도대학 및 창업보육센터 활성화 사업과, 교육부 주도의 LINC 창업교육센터 등의 사업을 강화하였다.

또한 첨단기술 창업팀을 발굴하여 투자, 멘토링, 정부 R&D를 일괄 지원하는 '글로벌 시장형 창업 R&D 제도'를 도입하였다. 유망 창업팀에게는 최대 3년간 5억원이 지원되며 민간 투자 1억원 이상을 알선하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 학교기업 현장실습생으로 매년 41,000여 명을 선발, 총 112억 원을 지원한다. 이러한 창업지원정책에 힘입어 국내 창업활동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박철수, 2013). 통계청(2015)에 따르면 신설된 법인 수는 2014년에 전국적으로 84,697개로 2012년의 74,162개에 비하여 연평균 7.1% 증가하였다. 40대 미만 청년창업에 의한 신설법인 개수는 2014년 22,806개였고 이는 2012년 21,048개에 비하여 연평균 4.2%가 증가한 수치이다.

1.2. 한중 기업가정신 비교연구 현황

현재까지의 한-중 기업가정신 비교 논문들은 현 기업가들에 대한 비교 연구보다는 잠재적 창업가인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을 제시하고 비교한 논문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기업가정신을 비교한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김성순(2009)은 한국과 중국의 잠재적 창업가를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성취욕구, 창업동기 및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양국 잠재적 창업가의 기업가정신, 성취욕구, 창업동기, 창업의지를 비교 분석하였고, 중국의 잠재적 창업가들의 각 영역에 대한 수치가 한국보다 모두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Jiang(2010)은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감성지능과 문화지능 그리고 창업의향 사이의 관계, 감성지능과 창업의향의 관계, 문화지능과 창업의향의 관계에 대한 경력선택 자기효능성의 조절기능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감성지능, 문화지능, 경력선택, 자기효능성이 창업의향에 부분적 그리고 긍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 이 변수들이 중국 대학생의 경우 한국 대학생들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장연(2008)은 진로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이 학생들의 창업의지 형성에 긍정적인 요인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로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다. 진로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을 조절변수로 활용하여 경력지향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진로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 조사대상인 한국과 중국의 경력지향성, 창업의지, 진로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국 대학생들이 한국 대학생들보다 창업지향성이 높은 것으로, 그러나 관리지향성, 기술지향성, 안정지향성은 한국 대학생들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정해(2006), 박철·강유리(2010) 그리고 김종운(2015)은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대학생들을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서정해(2006)의 창업 및 기업가에 대한 한

중일 대학생의 의식 비교 연구는 창업가적 의욕과 열정, 지식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들이 일본의 대학생들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들 간에는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박철·강유리(2010)은 한국, 중국, 몽골, 캄보디아 대학생들의 창업성향을 묻는 여섯 가지 질문을 통해 비교연구 하였는데,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들은 몽골과 캄보디아의 대학생들에 비해 낮은 창업성향을 보였고, 한국은 중국보다도 낮은 수치였다.

한국, 중국, 미국, 이스라엘 청년들의 기업가적 의도를 비교한 김종운(2015)의 연구는 위의 연구들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이 연구는 계획적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에 따라 기업가적 의도가 기업가적 행동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가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계획적 행동이론이란 특정 행동을 일으키는 핵심적 요인은 '의도'라고 규정하는 이론으로,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인은 행동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Behavior),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그리고 인지된 행동 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이다. 이러한 가정 위에서 한국, 중국, 미국, 이스라엘 청년들의 개인적 특징, 인구통계학적 특징들, 계획적 행동이론의 세 가지 요인들, 그리고 기업가적 의도를 포함한 질문지를 통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계획적 행동이론의 요인들과 기업가적 의도 간에 매우 정적인 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스라엘과 한국의 학생들이 중국과 미국의 학생들보다 기업가적 의도의 수치가 매우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김종운(2015)의 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논문들은 중국의 전반적인 기업가정신이 한국의 기업가정신에 비해 더 높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연구들은 대부분 한국과 중국 대학생들의 잠재적 기업가정신을 비교하는데 그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대학생들의 기업가적 지향성이라는 변수를 사용하여 한중의 잠재적 기업가들의 기업가정신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에 더 나아가 각 국가별로 기업가정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변수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개인주의가 양국 대학생들의 기업가적 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한다.

1.3. 연구방법 및 가설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들의 기업가적 지향성을 비교한다. F검정과 t검정을 통해 한국과 중국 대학생들의 기업가적 지향성을 측정하는 변수와 문화적 변수를 비교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대부분의 한-중 비교선행연구들의 결과가 중국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이 한국 대학생들보다 더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종운(2015)의 연구를 제외한 모든 연구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를 근거로 첫 번째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1 : 중국 대학생들의 기업가적 지향성 정도가 한국 대학생들의 기업가적 지향성 보다 더 높다

1-1 : 중국 대학생들의 내재적 통제력이 한국 대학생들의 내재적 통제력보다 더 높다.

1-2 : 중국 대학생들의 혁신성이 한국 대학생들의 혁신성보다 더 높다.

둘째,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대학생들의 기업가적 지향성 형성에 개인주의가 어떤 기여를 하는지 조사하기 위해 양국 설문 조사를 토대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별 회귀분석의 모델과 설문 문항 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1> 회귀분석 모델

요인		문항수
종속변수	기업가적 지향성	-
	혁신성	5
	내재적 통제력	5
독립변수	개인주의	5

본 연구의 모델이 되는 Mueller & Thomas(2001)의 연구는 불확실성 회피성이 낮은 문화일수록 개인의 혁신성을 고양시키며, 개인주의가 강한 문화일수록 내재적 통제력이 증가한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화에서 기업가적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 지향성을 촉진하는 문화적 변수 중 개인주의에 집중하기로 한다. Mueller & Thomas(2001)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두 번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2 : 개인주의가 강한 문화일수록 대학생들의 기업가적 지향성이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2-1 : 개인주의는 내재적 통제력을 향상시킨다.

2-2 : 중국의 대학생들이 한국 대학생들보다 자국에 대해 더 개인주의적인 국가로 느끼고 있다.

한국에서는 서울대학교와 한동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중국에서는 북경대학교와 절강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중 양국의 수도권대학 1개씩과 지방대학 1개씩 선정하기로 하되, 글로벌 역량이 높다고 양국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대학 중에서 선정하였다. 또한 인문사회와 이공자연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조류에 맞추어 전공을 배분하였으며, 양국의 미래 경제를 담당하게 될 잠재적 기업가정신을 비교측정하기 위해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였다.

설문내용은 양국 대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자국의 문화적 특성과 개인의 기업가적 지향성을 묻는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설문지는 2014년도 봄학기과 가을학기에 해당 대학의 교수들에 의해 수업시간에 시행되었다. 한국 대학생들에게는 영문 설문지를, 중국 대학생들에게는 중국어 설문지를 나누어 주었다.

II. 선행연구

2.1.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에 대한 정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기업가의 개념은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는데, 18세기 이전에는 ‘상인’이라는 의미의 실업가, 고용주, 소유주의 의미로 사용되어왔으나 18세기 초에 프랑스경제학자 Richard Cantillon에 의해서 “토지, 노동,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통합하여 상품을 생산판매하며, 자기 자본을 투자하여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라고 정의 되었다. 20세기 이후 Schumpeter를 통해서 기업가에 대한 체계적인 개념이 확립되게 되는데, 그는 기업가를 ‘혁신적인 기능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하여 소유주 또는 일반경영자와 구별하였다(고명숙 외, 2015). 민경호(2006)은 기업가와 경영자의 차이를 <표 2>과 같이 비교 서술하였다.

<표 2> 기업가와 경영자 비교

기업가	경영자
특정한 기회를 끊임없이 추구하려고 하며, 외부자원의 활용과 시장지향적인 태도	내부자원의 효율적인 최적화에 주력
현실적이고 단기간에 사업 기회를 포착, 활용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사업 기회 활용
비체계화된 의사결정	체계적인 의사결정
다양한 비공식 네트워크를 가진 평면조직	계층조직을 전제로 수직화된 관료조직

기업가정신 연구는 최근 많은 연구자들과 기업가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기업가정신이 학문 분야로 자리를 잡으려는 30년도 채 되지 않았다. 경제 발전에 있어서 기업가의 역할을 강조한 Schumpeter의 연구를 제외하면, 기업가정신과 중소기업에 관한 연구는 1970-1980년대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중소기업과 구분하여 하나의 독립적인 연구 분야로서의 기업가정신 연구의 역사는 1990년대에서야 시작되었다. 2000년대에는 기업가정신 연구가 세부화되어 기업가의 자본 조달 및 벤처캐피탈, 기업가적 과정 및 창업기업 경영, 기업가 네트워크 및 사회적 자본, 여성 기업가 및 소수인종, 이민자들에 의한 창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성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최근 10-20년간의 기업가정신 연구의 양적 성장과 연구분야의 다양화 경향은 유력한 경영 저널에서의 기업가정신 연구의 지위 향상 뿐 아니라 많은 기업가정신 전문 학술지를 탄생시켰다(김영환·양태용, 2013).

기업가정신의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몇몇 학자들은 기업가정신을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New Business Creation)으로 정의하고 있다(Aldrich, 1992; Davidsson & Wiklund, 2001; Low & MacMillan, 1988; Van de Ven, 1992; Venkataraman, 1997).

여기서 ‘새로운 사업’이란 단지 창업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기업들이 내부적인 사업체를 새로 만든다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Stevenson과 Timmons의 정의

가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Stevenson et al.(1994)는 기업가정신을 “현재 통제할 수 있는 자원에 구애받지 않고 기회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Timmons(1994)는 기업가정신을 “기회에 초점을 두고, 총체적 접근방법과 균형 잡힌 리더십을 바탕으로 하는, 사고/추론/행동 방식”으로 정의하여, 기업가정신을 사고의 방식 뿐만 아니라 행동의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배종태·차민석(2005)는 Stevenson과 Timon의 정의를 통합하여 기업가정신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능력에 구애 받지 않고, 기회를 포착하고 추구하는, 사고방식 및 행동양식”으로 정의하였다.

2.2. 기업가적 성향

이전부터 개인의 기업가적 성향에 대한 연구와 이것을 촉진하는 환경요인에 대한 연구는 학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먼저 개인의 기업가적 성향에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지유·양해술(2014)과 김종운(2014)은 창업가의 어떤 특성이 창업 동기와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다.

Babb & Babb(1992)의 연구는 기업 설립자와 비설립자를 나누는 성향적 특징으로 성취욕, 감정적 안정성을 뽑았고 Rauch & Frese(2007)는 기업가정신을 유발하는 개인 성격 특징을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 자기효능감, 혁신성, 스트레스 통제력, 독립에 대한 욕구, 진취적 성격이라고 언급하였다.

김범성(2012)은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과 같은 기업가적 성향이 창업의도, 창업여부 그리고 창업성공과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밝혔다. 유봉호(2015)는 창업자의 자기효능감과 자율성이 창업에 대한 내재적 동기의 선행조건이 되며 내재적 동기는 위험감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험감수성은 창업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한다.

Mueller & Thomas(2001)는 기업가의 성향에 대한 다른 연구들에서 제시한 성취욕, 혁신성,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조절능력, 감정적 안정성, 독립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등과 같은 여러가지 기업가적 성향과 특징들 중에서도 기업가적 잠재력과 관련된 심리적인 특징을 ‘내재적 통제력’과 ‘혁신성’으로 보고 이 두 가지 심리적 특성에 집중하여 기업가정신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Mueller & Thomas(2001)가 제시한 혁신성과 내재적 통제력의 두 가지 성향을 기업가적 잠재력의 핵심 요소로 보기로 하였다. 왜냐하면, 혁신성은 기업가정신에 관한 슈뎀페터(Schumpeter, 1934)의 초기 연구에서부터 중요하게 다루어진 기업가적 성향으로 드러커(Drucker, 1985)에게도 집중을 받았으며 위에서 언급된 연구들 중에도 김범성(2012)과 Rauch & Frese(2007)는 혁신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내재적 통제력 역시 기업가정신의 심리학적 특성들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연구된 영역 중 하나(Perry, 1990)로 위에서 언급된 김범성(2012)과 Rauch & Frese(2007)의 연구는 진취성, 스트레스 통제력과 같이 통제력과 관련된 성향들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2.2.1. 내재적 통제력

심리학에서는 감각 제어와 다양한 상황 하에서 이것이 인간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시도되었다(Strickland, 1989). Rotter(1966)는 “통제력”(Locus of Control)이라는 개념을 창시하여 위의 연구 분야에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Rotter에 따르면 한 개인은 개인의 통제와 이해 안에서 혹은 그것을 넘어서서 존재하는 현상의 결과물을 인지한다. 내재적인 사람(An “Internal”)은 개인의 능력, 노력 혹은 기술에 의해 결과물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다. 반면에, 외재적인 사람(an “External”)은 개인의 통제 밖의 힘이 결과를 결정한다고 믿는다(ibid).

내재적 통제력(Internal Locus of Control)은 기업가정신 연구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심리적 특성 가운데 하나이다(Perry, 1990). Mueller & Thomas(2001)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내재적 통제력과의 긴밀한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언급한다. 만약에 누군가 벤처사업의 결과가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개인은 실패의 위험이 가득한 창업에 뛰어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과 능력에 대한 인지가 새로운 벤처 사업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기업가들은 외재적 통제요소보다 내재적 통제력에 더 집중하게 된다.

2.2.2. 혁신성

기업가정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Schumpeter는 혁신성을 기업가의 가장 핵심적인 성향 중의 하나로 보았다. Schumpeter(1934)는 기업가의 역할을 변화의 촉진제로 정의하였고, 기업가를 새로운 기회들을 포착하는 도구이자 아이디어뱅크이자 행동의 주체로 규정하였다. Drucker(1985)는 혁신을 기업가의 특별한 도구라고 보았다. Carland et al.(1984)는 혁신적인 전략 수행이 일반적인 소상공인과 기업가를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언급하였다.

그 외에도 많은 연구들이 기업가들이 비기업가들보다도 혁신적이라는 사실을 지지하고 있다. Sexton & Bowman-Upton(1986)은 창업과 기업에 관련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일반 비즈니스 전공 학생들보다 더 혁신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다. Carland, et al.(1988)은 기업가들이 소상공인에 비해서 혁신에 대한 더 높은 선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Carland & Carland(1991)는 남성과 여성 기업가들이 다른 경영 파트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혁신적 성향을 가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Smith & Miner(1985)는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의 설립자들이 다른 경영포지션에 있는 개인들보다도 혁신 영역에 있어서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얻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연구들은 혁신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동기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Shane et al.(1991)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추구, 혁신하고자 하는 기회들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되어왔다. 국제적인 연구들에서도 혁신하고자 하는 기회는 새로운 기업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자주 언급된

동기였다(Scheinberg & MacMillan, 1988; Blaise et al., 1990). 이처럼 혁신성은 기업가들의 특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들 중의 하나로 여러 연구자들이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기업가적 성향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도 내재적 통제력과 더불어 혁신성을 기업가의 성향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지표로서 사용하고자 한다.

2.2. 기업가적 지향성을 형성하는 문화적 요소-개인주의

Hofstede(1980)는 40여개 나라의 88,000명의 IBM 근로자들과 고용인들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하여 국가별 문화적 가치관을 구별하는 척도를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척도는 ‘권력 거리’로 부하들을 그들의 상사들로부터 격리시키는 감정적 거리를 뜻한다. 두 번째는 ‘불확실성 회피성’이며 한 문화의 구성원들이 불확실한 상황이나 미지의 상황으로 인해 위협을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 세 번째 척도는 ‘개인주의’로 사회가 집단주의보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어느정도 강한가를 평가하는 척도이다. 마지막 척도는 ‘남성성-여성성’으로 얼마나 과업 지향성인지 인간 지향성인지를 평가하는 척도이다. Hofstede는 이러한 문화적 특징들과 기업가정신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여러 기업가정신 연구들이 Hofstede의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Hofstede의 문화 척도를 활용한 연구는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다. 정태흠·유효상(2012)는 국가문화가 기업가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는 기업가정신이 높은 수준의 개인주의, 낮은 수준의 불확실성 회피, 낮은 수준의 권력 간격, 그리고 높은 수준의 남성다움 문화에 의해 촉진된다는 전통적 가설에 대해서 평가했다.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GEM) 리포트의 총 48개 국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통적 가설과 달리 총 초기 기업가적 활동은 개인주의와는 부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총 초기 기업가적 활동은 다른 세 문화변수인 권력간격, 남성다움, 그리고 불확실성 회피와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또한 개선형 창업동기가 생계형 창업동기에 비해 높은 수준의 개인주의, 낮은 수준의 남성다움, 그리고 낮은 수준의 불확실성 회피에 비례하였다.

Mueller & Thomas(2001)는 기업가적 잠재력과 관련된 심리적인 특징을 내재적 통제력과 혁신성으로 보고 이 두 가지 심리적 특성이 어떤 문화에서 더 빈번해지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Hofstede의 네 가지 문화 척도 중에서 두 가지 척도-개인주의, 불확실성 회피성-에 집중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개인주의적인 문화권에서 내재적 통제력이 증가하며, 불확실성 회피성이 약한 문화권에서 혁신성이 증가한다. 이에 더하여, 내재적 통제력과 혁신성이 통합된 개념인 ‘기업가적 지향성’은 전체주의적이며 높은 불확실성 회피 문화보다 개인

주의적이고 낮은 불확실성 회피 문화권에서 나타나기 쉽다는 것을 발견했다. 본 연구에서는 Mueller & Thomas의 연구를 기반으로 개인주의에 집중하였다.

III. 설문조사 결과

3.1. 조사 대상자의 특성

본 설문의 유효한 설문조사 응답자는 총 367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서울대 재학생은 136명(37.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북대 재학생이 92명(25.0%), 한동대 재학생은 74명(20.1%), 절강대 재학생은 65명(17.9%)이었다. 성별은 남자가 211명(57.1%)으로 여자 156명(42.9%)에 비하여 많았다. 재학생들의 전공별 분포는 상경계열 학생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에서 128명(34.8%)이었으며, 인문사회계열 학생은 112명(30.5%), 이공자연계열 학생은 102명(27.8%)이었으며, 전공을 미입력한 조사자는 25명(6.9%)이었다.

<표 3>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유효한 응답자 수	
국가별	한국	한동대	74(35.2%)
		서울대	136(64.8%)
	중국	북경대	92(58.6%)
		절강대	65(41.4%)
총 계		367	
전공별	상경계열		74(35.2%)
	인문사회계열		136(64.8%)
	이공자연계열		92(58.6%)
	미입력		65(41.4%)
총 계		367	

3.2. 문항구성

다음은 각 항목별 문항의 내용이다. 문항은 총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며, 대학생들이 느끼는 자국의 문화적 경향성을 묻는 개인주의에 관한 질문과 대학생들의 기업가적 지향성을 묻는 내재적 통제력, 혁신성 영역으로 나뉘어 있다.

설문지는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지 선택문항을 사용하였다. 질문은 각 영역별로 5문항씩 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Mueller & Thomas(2001)의 연구와 같이 기업가적 지향성(Entrepreneurial Orientation)이라는 변수를 개인의 기업가적 성향인 혁신성과 내재적 통제력을 활용하여 만들었다. 기업가적 지향성은 혁신성과 내재적 통제력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각 문항은 Mueller & Thomas(2001)가 사용한 질문을 활용하여 개발되었다. Mueller & Thomas는 개인주의에 대해서 묻는 문항은 Hofstede(1980)가 사용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내재적 통제력에 대해서 묻는 질문은 Rotter(1966)의

연구에서 사용된 Rotter I-E Scale을 수정하여 적용하였으며 혁신성에 대해서는 the Jackson Personality Inventory Manual(JPI)을 따라 문항을 수정 반영하였다.

<표 4> 설문조사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결과

잠재 변수	측정변수	요인			신뢰 계수
		1	2	3	
개인주의	탈 가족주의 1	0.5133	0.0961	0.0073	0.7543
	탈 가족주의 2	0.7123	0.1084	0.0321	
	탈 가족주의 3	0.5579	-0.0056	0.0594	
	개인화된 사회 1	0.6853	0.0117	-0.0147	
내재적 통제력	개인화된 사회 2	0.5595	0.0788	-0.0433	0.7373
	내재적 통제소재 1	0.0113	0.5813	-0.0661	
	내재적 통제소재 2	0.0316	0.6128	-0.0767	
	외재적 통제소재 3	0.0986	0.5198	0.0214	
	외재적 통제소재 4	0.1375	0.5643	0.0956	
혁신성	외재적 통제소재 5	0.0739	0.6421	-0.0240	0.7473
	혁신성 1	0.0839	-0.1025	0.7463	
	혁신성 2	-0.0491	-0.1120	0.7230	
	혁신성 3	0.2085	-0.0548	0.4337	
	혁신성 4	-0.0829	0.2255	0.4979	
혁신성 5	-0.0310	0.1967	0.6485	-	
고유값	1.963	1.96	1.85		
설명변량	0.3932	0.3927	0.3720		
누적설명변량	0.3932	0.7859	1.1579		
KMO of sampling adequacy.	0.7597				

질문 문항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을 위한 요인분석에서 각 질문의 KMO 값의 평균은 0.7597이며 모든 문항에서 KMO는 0.6000 이상이였다. 또한 문항에 대한 Cronbach alpha 값은 모든 영역에서 0.7이상 이였다. 이와 같이 각 설문 문항들이 본 연구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검증하였다.

3.3. 자료분석

양국 대학생들은 각 질문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중에 하나를 선택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다’는 2점, ‘보통이다’는 3점, ‘그렇다’는 4점,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수치화하였고, 각 질문의 내용에 따라 역순으로 배점한 경우도 있다. 질문지는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개인주의, 내재적 통제력, 혁신성을 묻는 질문으로 나뉘어있다.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을 합산하여 수치화하여 아래와 같이 분산, 평균에 대한 한중 대학생간의 비교 분석을 시행하였고, 회귀분석을 통해 각 항목과 기업가적 성향의 관계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3.3.1. 국가별 비교 분석

<표 5> 기술통계 분석결과

변수	국가		표준편차	
	한국	중국	한국	중국
개인주의	16.42	19.71	3.12	2.69
혁신성	15.59	16.16	3.18	3.07
내재적 통제력	15.74	16.96	3.01	3.28
기업가적 지향성	246.04	273.59	73.02	75.78

<표 6> F-test

변수	가설	Ho: ratio=1 (ratio=standard deviation(sd) of Chinese students/ sd of Korean students)		
		Ha: ratio≠1		
개인주의		0.0268*	0.0536	0.9732
혁신성		0.3228	0.6457	0.6772
내재적 통제력		0.8765	0.2471	0.1235
기업가적 지향성		0.6923	0.6155	0.3077

※ *** p<0.001; ** p<0.01; * p<0.05.

<표 7> t-test

변수	가설	Ho: diff = 0 (diff=mean of Chinese students - mean of Korean students)		
		Ha: diff < 0	Ha: diff ≠ 0	Ha: diff > 0
개인주의		1.0000	0.0000***	0.0000***
혁신성		0.9568	0.0865	0.0432
내재적 통제력		0.9999	0.0003**	0.0001**
기업가적 지향성		0.9998	0.0005**	0.0002**

※ *** p<0.001; ** p<0.01; * p<0.05.

<표 5>, <표 6> 그리고 <표 7>에서는 각 항목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국가별로 제시하였고 이를 F검정과 t검정을 통해서 비교하였다. 먼저 F검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귀무가설 Ho를 ‘중국학생들의 각 항목의 값의 표준편차/한국 학생들의 각 항목의 표준편차=1’이라고 세웠고, 대립가설 Ha는 ‘중국학생들의 각 항목의 값의 표준편차/한국 학생들의 각 항목의 표준편차≠1’라고 세웠다. t검정의 귀무가설 Ho는 ‘중국학생들의 각 항목 값의 평균-한국학생들의 각 항목의 값의 평균=0’이며 이에 대한 대립가설 Ha는 ‘중국학생들의 각 항목 값의 평균-한국학생들의 각 항목의 값의 평균≠0’이다.

F검정과 t검정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문화 변수인 ‘개인주의’의 영역에서 F검정을 실시하면 대립가설이 기각되어 한국과 중국의 분산은 통계적으로 동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합동 두 표본 t검정을 실시하면 중국이 한국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2.1226 더 크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 대학생들보다 중국의 대학생들이 자국의 문화에 대해 더 개인주의적 사회로 인식하고 있었다.

기업가적 성향 변수 중에 ‘혁신성’의 변수는 F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수준에서 분산은 동일하다는 결론을 얻게되며, 합동 두 표본 t검정을 실시하면 유의한 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게 되어 평균이 동일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내재적 통제력’의 영역에서 F검정을 실시하면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게 되어 분산은 동일하다는 결론에 이르며, 합동 두 표본 t검정을 실시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중국이 한국보다 평균이 더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가적 지향성’ 영역에서 F검정을 실시하면 유의한 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게 되어 분산은 동일하다는 결론에 이르며, 합동 두 표본 t검정을 실시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중국의 평균이 한국보다 더 크다.

요약하자면, 중국 학생들은 ‘내재적 통제력’과 ‘기업가적 지향성’에서 한국 학생들보다 높은 평균 수치를 보여주었다. ‘혁신성’에 있어서만 두 국가 학생들의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설 1, 가설 1-1, 가설2-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3.3.2. 문화와 기업가정신 회귀 분석

<표 8>에서는 학생들의 기업가적 성향과 개인주의의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한국 학생들의 결과를 분석해보면 어떤 종속변수도 개인주의와 유의한 관계를 갖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중국 학생들의 경우에는, 내재적 통제력 변수가 개인주의에 의해 정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초기 가설과는 다른 결론을 이끌어낸다. 가설 2-1과 같이 중국의 경우 개인주의가 대학생들의 내재적 통제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학생들은 내재적 통제력과 개인주의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개인주의적인 문화에서 기업가적 지향성이 반드시 높게 나타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표 8> 개인주의와 다른 기업가적 성향 변수들과의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내재적 통제력	혁신성	기업가적 지향성(혁신성 * 내재적 통제력)
독립변수				
한국	개인주의	-0.0538 (0.422)	0.0116 (0.871)	-0.8371 (0.607)
		0.3115** (0.001)	-0.0140 (0.879)	4.8238* (0.032)

** *** p<0.001; ** p<0.01; * p<0.05.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동아시아 경제권 안에서도 기업가정신이 매우 활발한 한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가정신에 대해 비교하고 문화와 기업가정신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기업가정신과 문화적인 변수에 대한 비교 연구의 결과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중국의 대학생들이 한국의 대학생들에 비해 자국에 대해 더 개인주의적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또한 개인의 기업가적 성향에 대한 비교 연구의 결과는 내재적 통제력과 혁신성 모두 중국의 대학생들이 한국의 대학생들에 비해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문화적 변수에 대한 비교 연구 결과는 초기 가설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국의 대학생들의 기업가적 지향성은 개인주의 변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중국의 대학생들은 영

향을 받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한국 대학생들의 혁신성과 내재적 통제력은 어떤 문화적 변수와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지 않으나 중국 대학생들의 내재적 통제력은 개인주의와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다.

결과적으로 <표 9>와 같이 가설 1, 1-1, 2-2를 제외한 가설은 기각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들의 잠재적 기업가정신을 비교 연구한 선행연구들과 대체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한국에 비해 중국의 대학생들의 잠재적 기업가정신이 더 높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그러나 기업가정신을 형성하는 문화적 변수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개인주의, 불확실성 회피성과 같은 문화적 특징이 그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기업가정신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표 9> 가설검증결과

가설	기각 여부
가설 1: 중국 대학생들의 기업가적 지향성 정도가 한국 대학생들의 기업가적 지향성 보다 더 높다	미기각
1-1: 중국 대학생들의 내재적 통제력이 한국 대학생들의 내재적 통제력보다 더 높다.	미기각
1-2: 중국 대학생들의 혁신성이 한국 대학생들의 혁신성보다 더 높다.	기각
가설 2: 개인주의가 강한 문화일수록 대학생들의 기업가적 지향성이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기각
2-1: 개인주의는 내재적 통제력을 향상시킨다.	기각
2-2: 중국의 대학생들이 한국 대학생들보다 자국에 대해 더 개인주의적인 국가로 느끼고 있다.	미기각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연구결과가 모든 문화권에서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 양국가의 대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문화적 요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양국 대학생들은 각각 다른 문화적 요소에 의해 기업가적 지향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요소를 발견하는 연구는 양국 잠재적 기업이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이루어진 한-중 대학생들의 잠재적 기업가정신의 비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각 국가별 잠재적 기업가정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요인을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문화적 요인을 개인주의에 국한시킬 수 밖에 없었고, 위험회피성의 경우 요인분석과정에서 제외해야 했다. 또한 설문문항을 당초 한중 양국에서 영어로 실시하려 계획하였으나, 중국대학 교수들의 조언으로 중국 대학생들에게는 중국어로 구성하였고, 한국 대학생들에게는 영어로 구성하여 국가별 응답자들의 문항 이해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문화적 요인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설문연구 절차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REFERENCE

- 고명숙·고혁진·김용태·이상한·전혜진(2015). *손에 잡히는 기업가정신*. 서울: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 곽배성(2015). *중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업, 서울: 포스코경영연구원.
- 김범성(2012).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과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 과정모형을 중심으로, *유라시아연구*, 9(1), 119-152.
- 김영환·양태용(2013). 기업가정신 전문 유명 국제학술지 논문 검토를 통한 기업가정신 연구 동향 분석, *중소기업연구*, 35(3), 347-376.
- 김성순(2009). *한국과 중국의 잠재적 창업가의 창업의지에 관한 비교연구*,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종운(2014).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창업동기 및 창업계획시기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9(1), 79-87.
- 김종운(2015). 대학생들의 창업의향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The Journal of Small Business Innovation*, 18(1), 1-14.
- 민경호(2006). *기업가정신*, 서울: 무역경영사.
- 박지유·양해술(2014). 창업가 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창업교육을 이수한 예비창업자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9(2), 97-107.
- 박천수(2013). 박근혜정부의 청년창업 추진전략, *The HRD Review*, 16(5), 14-39.
- 박철·강유리(2010). 한국, 중국, 몽골, 캄보디아 대학생들의 창업성향에 관한 비교연구, *중소기업연구*, 33(2), 225-246.
- 배종태·차민석(2005). 기업가정신과 벤처경영 부문의 연구동향: 한국과 미국의 학술지 비교분석(1998-2004), *벤처경영연구*, 8(3), 57-94.
- 서정해(2006). 창업 및 기업가에 대한 한중일 대학생의 의식, *경영교육연구*, 43, 153-171.
- 오종혁·김홍원(2015). *중국 주요지역의 ICT 창업환경 분석(15-02)*,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유봉호(2015). 자기효능감과 자율성이 창업성공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내재적 동기와 위험감수성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37(2), 87-105.
- 이성봉(2015). 한국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지원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책방향, *경상논총*, 33(1), 97-114.
- 장연(2008). *한중대학생의 경력지향성과 창업의지와의 관계: 진로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의 조절작용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태흠·유효상(2012). 국가문화가 기업가적 활동과 창업동기에 미치는 역할,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15(4), 29-55.
- 통계청(2015). *연령대별 신설법인수*, Retrieved December 29, 2015, from: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42&tblId=DT_142N_A10252&vw_cd=&list_id=&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K1&path=.
- Aldrich, H. E.(1992). *Methods in Our Maddness? Trends in Entrepreneurship Research*, In: D.L. Sexton and J.D. Kasarda (Eds.), *The State of the Art Entrepreneurship*, Boston : PWS-Kent.
- Babb, E. M. & Babb, S. V.(1992). Psychological Traits of Rural Entrepreneurs, *The Journal of Socio-Economics*, 21(4), 353-362.
- Bae, Z. T. & Cha, M. S.(2005). Recent Trend in Entrepreneurship and Venture Management Research : 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and American Journals (1998-2004), *The Korean Small Business Review* 8(3), 57-94.
- Blaise, R., Toulouse, J. & Clement, B.(1990).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entrepreneurial motivation based on personal equation, hierarchial analysis, and other statistical methods*, In R. Gomulka. and W. Ward (Eds), *Proceedings of the 39th World Conference of Small Business*, Washington D.C.: International Council.
- Carland, J. C. & Carland, J. W.(1991). An empirical investigation into the distinctions between male and female entrepreneurs and managers,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9(3), 62-72.
- Carland, J. W., Carland, J. C., Hoy, F. & Boulton, W. R.(1988). Distinctions between entrepreneurial and small business ven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5(1), 98-103.
- Carland, J. W., Hoy, F., Boulton, W. R., & Carland, J. C.(1984). Differentiating entrepreneurs from small business owners : A conceptualiz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9(2), 354-359.
- Davidsson, P. & Wiklund, J.(2001). Levels of Analysis in Entrepreneurship Research: Current Research Practice and Suggestions for the Futur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5(4), 81-99.
- Drucker, P.(1985).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 Practice and principles*, New York : Harper and Row.
- Hofstede, G.(1980). *Culture's consequences :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CA : Sage Publications.
- Jeong, T. H. & Ryou, H. S.(2012). The Influence of National Culture on Entrepreneurial Activity and Motive,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Venture Studies*, 15(4), 29-55.
- Jiang, Z.(2010). *Emotional Intelligence, Cultural Intelligenc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 : A Comparative Study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Master dissertation, Yeungnam University.
- Kim, B. S.(2012). A Study on the Entrepreneur's Psychological Traits and Entrepreneurship: Focus on the Process Model, *The Journal of Eurasian Studies*, 9(1), 119-152.
- Kim, J. Y.(2014). An Analysis of Factors on College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s: Focused on the Motivation and Intended Startup Tim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and Venturing*, 9(1), 79-87.
- Kim, J. Y.(2015). An international analysis of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s: a four country comparison, *The Journal of Small Business Innovation*, 18(1), 1-14.
- Kim, S. S.(2009). *A Comparative Study of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Between Korea and China*, Doctoral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 Kim, Y. H. & Yang, T. Y.(2013). Researching Entrepreneurship over the Last Decade : A Challenge for the 21st Century,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35(3), 347-376.
- Kiss, A. N., Danis, W. M. & Cavusgil, S.T.(2012).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research in emerging economies: A critical review and research agenda,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7(2), 266-290.
- Ko, M. S., Ko, H. J., Kim, Y. T., Lee, S. H. & Jeon, H. J.(2015). *Introduction to Entrepreneurship*, Seoul : Ministry of Education,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and Korea Entrepreneurship Foundation.

- Kwack, B. S.(2015). *China's New Engine of Growth*, Seoul : Posco Research Institute.
- Lee, S. B.(2015). Entrepreneurship and Start-up Promotion Policy in Korea: Evaluation and Policy Recommendations, *Koreanische Zeitschrift für Wirtschaftswissenschaften*, 33(1),97-114.
- Low, M. B. & MacMillan, I. C.(1988). Entrepreneurship: Past Research and Future Challenges, *Journal of Management*, 14(2), 139-162.
- Min, K. H.(2006), *Entrepreneurship*, Seoul : Muyokpub.
- Mueller, S. L. & Thomas, A. S.(2001). Culture and entrepreneurial potential : a nine country study of locus of control and innovativeness, *Th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6(1), 51-75.
- Oh, J. H. & Kim, H. W.(2015). *The Analysis of Chinese Environment of ICT Startup(15-02)*, Sejong :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Park, C. S.(2013). Strategies for Facilitating Youth Start-up of The Government of Park, *The HRD Review*, 16(5), 14-39.
- Park, C. & Kang, Y. L.(2010). A Comparative Study on Entrepreneurship Among Korea, China, Mongolia, and Cambodia,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32(2), 225-246.
- Park, J. Y. & Yang, H. S.(2014).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Focusing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Completed Prefounder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2), 97-107.
- Rauch, A. & Frese, M.(2007). Let's put the person back into entrepreneurship research : a meta-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usiness owners' personality traits, business creation and success, *European Journal of Work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16(4), 353-385.
- Rotter, J. B.(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 General and Applied*, 80(1), 1-28
- Perry, C.(1990). After further sightings of the Heffalump,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5(2), 22-31.
- Scheinberg, S. & MacMillan, I.(1988). An eleven country study of the motivations to start a business, In B. Kirchoff, W. Long, W. McMullan, K.H. Vesper, and W. Wetzel (Eds.),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Wellesley, MA : Babson College.
- Schramm, C.(2008). *Youth Entrepreneurship will be new engine for global economy*, MK, Retrieved November 3, 2015, from <http://news.nk.co.kr/column/view.php?year=2008&no=700880> November 17.
- Schumpeter, J. A.(1934).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Press.
- Seo, J. H.(2006). The Thinking of the University Students about an Entrepreneur in Korea, China, and Japan,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43, 153-171.
- Sexton, D. L. & Bowman-Upton, N. B.(1986). *Validation of personality index : Comparativ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alysis of female entrepreneurs, managers, entrepreneurship students and business students*, In R. Ronstadt, J. Hornaday, R. Peterson, & K. Vesper (Eds.).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Wellesley, MA : Babson College.
- Shane, S. A., Kolvereid, L., & Westhead, P.(1991). An exploratory examination of the reasons leading to new firm formation across country and gender,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6(6), 431-446.
- Smith, N. R. & Miner, J. B.(1985). *Motivational considerations in the success of technologically innovative entrepreneurs: Extended sample findings*, In J. Hornaday, E. Shile, J. Timmons, and K. Vesper (Eds.),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Wellesley, MA : Babson College.
- Statistics Korea (2015). *New Established Corporates*, Retrieved December 29, 2015, from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42&tblId=DT_142N_A10252&vw_cd=&list_id=&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K1&path=
- Stevenson, H. H., Roberts, M. J. & Grousbeck, H. I.(1994). *New Business Ventures and The Entrepreneur*, New York : McGraw-Hill/Irwin.
- Strickland, B. R.(1989). Internal-external control expectancies, *American Psychologist*, 44(1), 1-12.
- Timmons, J.(1994). *New Venture Creation :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 Boston : McGraw-Hill.
- Van de Ven, A. H.(1992). *Longitudinal Methods for Studying the Process of Entrepreneurship*, In : D.L. Sexton & J.D. Kasarda (Eds.), *The State of the Art Entrepreneurship*, Boston : PWS-Kent.
- Venkataraman, S.(1997). The Distinctive Domain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An Editor's Perspective, *Advances in Entrepreneurship, Firm Emergence, and Growth*, 3(1), 119-138.
- Yoo, B. H.(2015). The Effect of Self-efficacy and Autonomy on the Possibility of Start-up Success : Focus on Mediation Role of Intrinsic Motivation and Risk Taking,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37(2), 87-105.
- Zhang, Y.(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Orient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among Korean and Chinese College Students- With Emphasis on the Moder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Master dissertation, Yeungnam University.

A Comparative Study of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Individualism on Entrepreneurial Orientation in Korea and China*

Ahn, Jinwon**
Yoo, Daehyun***

Abstract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compar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of both countries' students and to compare the effect of individualism on developing entrepreneurial orientation of both countries.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will conduct two analysis. Firstly, the comparative study on entrepreneurial orientation of both students will be implemented by conducting F-test and t-test. Secondly, the regression analysis between an independent variable - individualism - and dependent variables - innovativeness, internal locus of control, and entrepreneurial orientation - will be conducted in order to compare the effect of individualism on developing entrepreneurial orientation.

Prior to implementation of two analysis, this study has implemented the survey to Korean and Chinese university students to estimat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a cultural variable to influenc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The question of survey is divided into two parts - individual entrepreneurial orientation including internal locus of control and innovativeness and a cultural variable, individualism.

As other precedent comparative studies of Chinese and Korean potential entrepreneurship concluded, Chinese students have shown higher entrepreneurial orientation than Korean students. However, on the contrary to prior studies on cultural factors and entrepreneurship, only Chinese students' entrepreneurial orientation is influenced by individualism. Any dependent variables of Korean students were not affected by individualism variable.

Key Words: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Orientation, Innovativeness, Internal Locus of Control, Individualism

* This work was presented in 'Conference on Business Venturing 2016 Spring'

** Professor, School of Management & Economics, Handong Global University, ahn@handong.edu

*** Researcher,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Handong Global University, dhyoo@handong.edu